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全)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 운동』

각 전도회의 재정의 60%를 농어촌 교회를 위해 활용키로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3주년을 맞이한 지난 해에 농어촌의 미자립교회를 돕기로 결의한 바 있다.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운동(이하「100교회운동」)을 위해 그간 지원교회 선정, 후원자 모집 등 구체적인 작업을 해 온 전도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부터 이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하였다.

100교회의 선정은 전도위원회가 요청한 서류에 응답한 교회들과 총회 농어촌부와 전도부에서 추천한 교회들 중에서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은 100개 교회를 우선으로 하였다. 우리교회가 지원하기로 한 농어촌 교회들의 일반적인 실태를 살펴 보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은 월 15~20만원 정도이며, 경제적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교회도 상당수 있어서 외부에서 20~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촌 100교회 중 총 80개의 교회가 전도회, 다락방, 교회학교 혹은 가정이나 개인과 결연하였다(교회명과 결연자 명단은 4면 참고). 농어촌의 1개 교회를 돕는 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우선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아울러 기도로 후원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시화 추세 속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어촌과 그곳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 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앞서 이미 있는 농어촌 교회에 힘을 주어 자립하도록 도우므로써 전국 어디에나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자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목회의 장소가 다르고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도시의 교회나 농어촌의 교회가 모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몸이며, 농어촌 교회의 재건과 부흥이 없는 민족복음화의 길도 요원해 질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가지고 지체 간에 상호협력함으로 교회의 시대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교회와 전도회의 재정 중 60%를 내 보내기로 한 것은 이제까지의 선교회, 전도회 활동이 실제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획기가 마련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100교회운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마련하였다.

- ① 각 전도회가 농어촌 교회 세 곳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② 각 전도회의 재정은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에 60%, 자체 활동을 위해 30%, 전도회 협의회 상납금으로 10%를 사용한다.
- ③ 지원금은 주일예배 시 「농어촌 100교회운동」이라고 명시하여 헌금한다. 지원금은 매주 셋째주 화요일에 송금되므로 매월 셋째 주일까지는 헌금을 완료해야 한다.
- ④ 지원금은 농어촌의 1개 교회 당 매월 10만원씩 총회 전도부를 통해서 송금한다.

▶문의 및 후원신청

「100교회운동」본부 박종삼 전도사 (☎ 517-7651 ~ 5)

1월 학습, 세례식

25일(수) I, II 예배 시

1995년도 첫 학습·세례식이 25일 수요일 I, II 부 예배 시에 거행된다.

이를 위한 교육은 23일(월) 오후 7시 4층에서, 문답은 24일(화) 오후 7시 3층에서 한다.

새가족 환영회

29일(주일) 찬양예배 시

새가족부에서는 29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환영회를 가진다. 작년 10월, 11월, 12월과 올해 1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도록 한다. 교회생활에 대한 간단한 안내 후 교우들과의 인사, 새가족을 위하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 등의 순서가 마련되어 있다.

빛과 소금의 자세를 생각해 볼

고등부 제4회 겨울 수련회

25일(수)부터 동신교회 청소년훈련원에서

고등부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동신교회 기도원(청소년 훈련원)에서 네번째 겨울수련회를 개최한다.

“빛과 소금이 되자”는 주제 아래 청소년 전문 목회자인 이영호 목사가 집회와 아침경건회를 인도하며, 이종윤 목사와 김용진 전도사의 강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운진 집사의 특강과 복음성가 가수인 홍순관 초대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25일 교회에서의 출발은 오전 10시이다.

27일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준 선교사들의 잠들어 있는 양화진을 찾는 것으로, 빛과 소금의 자세를 생각해 보고 다짐하는 기도로 마칠 예정이다.

사도행전 책거리

1993년도 1월부터 찬양예배 시간을 통해 계속 해오던 사도행전 공부를 오늘로서 마치게 된다. 그간 성령의 역사와 사도들의 역동적인 행적들이 기록된 사도행전을 통해 교훈을 얻으면서 이 시대와 상황적 문제들을 재조명해 보고, 교회의 책임과 선교의 사명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사도행전에서 배운대로 우리도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를 이루어 ‘속사도행전’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하겠다.

1994년도 주보와 『순례자』 합본

테이프 보급실에서 실비에 판매

1994년도의 주보와 주간 신문인 <순례자>를 합본이 나왔다. 이 중 100권을 판매하는데 2층 테이프 보급소에 실비에 구입할 수 있다.

창세기 강해



지극히 작은 죄일찌라도

(19장 18절 ~ 26절)

이종운 목사

살인, 도세, 강도 등 최근 신문지상에 나타나 는 강력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지은 죄의 빙 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며 만일 지은 죄들이 모두 드러난다면 세상은 아마 벌켜 뒤집힐 것입 니다. 남의 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가 폭로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 두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미미한 죄라도 그것을 멀리하고 죄의 길에서 피 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우리 속에 뿌리박게 되었고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천사가 롯에게 알 려주었습니다. 아울러 도성을 떠나되 앞에 있는 산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라 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때 롯의 반응이 어떠 했습니까?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 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게 하소서”(19 ~ 20절).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자기의 뜻을 말하 며 타협하고 있습니다.

1. 롯의 실패 원인은 지극히 작은 죄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큰 바위에 부딪혀 넘어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돌뿌리입니다. 생각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를 소홀히 여길 때 그것이 큰 실패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롯은 형벌받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해주 었더니 이제는 육신의 약함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소돔을 속히 떠나 산으로 피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건져주실 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다 른 길로 가는 것도 용납하시리라는 오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했을 때에도 그들 은 광야에서 오히려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들이 바로의 손에서 놓임을 받은 것은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우리의 생활이 그러하지는 않 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원

망하며 투정하고,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약 해서 할 수 없다는 핑계를 얼마나 쉽게,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뜻도 다 저버리 고 각각 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 적인 약점을 이유로, 합리적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 로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아닌가요?

롯이 가고자 했던 곳은 소알 성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과 타협하겠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 에서 타협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범죄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롯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로 마서 1장 24, 26절에 ‘저희를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 은 길을 제시하셨지만 인간이 제 고집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지 않으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이것이 제 뜻대로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신 것이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버려 두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성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으면서(19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제 뜻대로 하는 가증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시면서도 이 모든 것 을 묵인하고 계십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다윗이 간음할 때에도, 고멜이 다른 남자와 도망할 때에도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면서 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저 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전지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도달하기 어렵 다고 해서 실천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롯이 멀리 있는 산에는 갈 수 없고 작은 성으로 피하겠 다는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죄는 죄를 부릅니다. 작은 죄는 더 큰 죄에 빠 지게 하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이후에 나타나는 롯의 행태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마침내 두 딸이 자기의 자식을 낳아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됨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3.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굴절시키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의 무서움에 대한 경 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롯의 처가 범한 죄는 잠깐 뒤를 돌아다본 것 뿐입니다. 때 우 사소해 보이는 그 죄로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 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고 곧 불의한 행동을 초래합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본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이기도 합니다. 죄의 도성 소돔은 우리 옛사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예수님께 속히 피 합시다. 사소한 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작은 죄 도 용납하지 말며 혹 죄를 지었다면 속히 회개 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천국시민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어디서 살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살면서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모두가 무거운 짐 을 지고 살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불의와 불충의 죄짐으로부터 시작 하여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양심과 공포와 죽음의 짐들까지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 고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 간은 아직껏 참으로 쉴 곳을 찾지못해 허 기지게 방황하고 있다.

명리와 재리, 또는 지식이나 쾌락의 지붕 밑에서 쉴 곳을 찾아 보아도 거기가 영원 한 인식처가 못된다는 것은 이미 자타가 공 인하는 바와 같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때까지 나에게 참 평안은 없다]고 고백을 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 중등부수련회를 마치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

이 태 조 (2학년)

찬양과 예배의 시간이 많았던 이번 수련회에서 둘째날 저녁의 자유 시간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친구들 중에는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친구도 있었다. 특히 2학년에 어떤 아이는 민지 앓는 가족들을 위해 하루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다. 걱정만 만쯤을 다 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내 자신의 안일한 모습이 부끄러웠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도 좋은 환경을 허락하셨음에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말씀을 듣는 중에 '거듭난 사람의 표식 중 하나는 전에는 좋았던 것이 싫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나는 아직도 찬송보다는 가요가 더 즐거운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거듭난 자라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와 찬양하는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야하겠다고 결심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산행이었다. 추운 날씨, 매서운 바람, 미끄러운 길... 그러나 서로 밀고 끌어주며 우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올랐을 때의 성취감과 멋진 설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나 혼자 보다는 믿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해야하는 것처럼, 그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산행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주 안에서 하나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전에는 기도시간이 지루하기만 했었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수양회였다. 친구들과도 마음으로 깊이 친해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 중등부수련회를 마치고

구원의 확신 주신 것을 감사

임 경 민 (3학년)

수련회 일정표를 받아들었을 때 자유시간이 적어 따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수련회 내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 많아 마음이 즐겁다.

먼저,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감사한다. 그리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각도로 생각할 수 있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기쁨이 새벽기도회 시간에 줄리고 힘든 것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다.

특강 시간, 청소년 범죄자들 중 대부분이 교회 출석 경험이 있다는 통계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 뜰만 밟는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진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고 결심하면서 수양회를 단순한 행사요, 즐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내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와 구원의 확신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린다.

▶ 청지기수련회에서

다시 주신 기회를 감사하며

김 미 향 (초등부 교사)

10여 년간 교사를 하면서 해마다 크고 작은 교사 교육에 참가했고 어린이 전도와 교육에 관한 특수 교육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반복되는 교회학교 교사 생활에 점차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 준비도 없이 아이들 앞에 서는 교사가 되어가고 있었던 작년 4월, 교안작성은 커녕 바쁜 생활을 핑계로 공과책을 대충 훑어보는 정도로 준비를 대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감각 해져가던 때, 육신의 고통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금 삶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을 사는 나는 귀한 교사의 직분까지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지기수련회 기간 중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내가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다"(고전9: 27)

▶ 청지기수련회에서의 결단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함이 되리라

정 정 덕 (루디아 제5전도회장)

부족함에도 충성된 자로 여기시어 새로운 일을 맡기심을 감사하면서 청지기수련회에 참가했다.

그간에 전도회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받은 은혜가 많아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리라는 각오는 있으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과, 전도회 운영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친밀한 교제, 상호협력, 영적 성장, 복음전파'의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

끊임없이 닦치는 크고 작은 일들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심을 일마다 때마다 체험하면서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에 앞서 내 뒷에 태인 십자가를 감사하면서 지고 가리라는 결심을 해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할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그릇으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예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 속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앞장 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100교회운동」자매결연 현황

80개 교회 후원자 확정

1995년 1월 22일 현재

■ 남산교회 / 18 교회 ■ 여전도회 / 29교회 ■ 개인·가정 / 29교회 ■ 다락방 / 2교회 ■ 교회학교 / 2교회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1	경기	풍계리	이성근(목)	요한 1
2	경남	거림	최경수(전)	요한 2
3	경남	내동	배규환(목)	요한 3
4	경동	송천	박규삼(전)	요한 4
5	경서	관천리	이문규(전)	요한 5
6	경서	금동	우병렬(목)	베드로 1
7	경서	백마	김우동(전)	베드로 1
8	경서	봉촌	임종근(전)	베드로 2
9	경서	서곡	박종근(전)	베드로 3
10	경서	요성	이종화(전)	베드로 4
11	경서	울곡	엄산덕(전)	베드로 4
12	경서	월천	김승규(전)	베드로 5
13	경안	명계	최종진(전)	바울 1
14	경안	산야	남두섭(전)	바울 2
15	경안	송내	이용빈(전)	바울 3
16	경안	송일	김기식(전)	바울 4
17	경안	시온	김광식(목)	바울 5
18	경안	안평	김재수(전)	모세
19	경안	양평	이순화(전)	마리아 1
20	경안	영광	김성진(전)	마리아 2
21	경안	은혜	강영숙(전)	마리아 3
22	군산	군산부활	노태현(목)	마리아 4
23	군산	금성	김선영(목)	마리아 5
24	군산	대암	이일준(전)	루디아 1
25	군산	신석	김진수(목)	루디아 1
26	대전	동수	신형수(전)	루디아 1
27	대전	마장	김철우(목)	루디아 2
28	대전 서	공주제일	곽봉근(목)	루디아 2
29	대전 서	두화	유시무엘(전)	루디아 3
30	대전 서	용정	문성용(전)	루디아 4
31	대전 서	울정	김의석(전)	루디아 4
32	목포	가고	차재우(전)	루디아 4
33	목포	계곡제일	김재관(전)	루디아 5
34	목포	모도	선석기(전)	루디아 5
35	목포	보길중앙	류영구(전)	에스터 1
36	목포	복용	정길모(목)	에스터 2
37	목포	시온	임대준(전)	에스터 3
38	목포	신명	신오식(목)	에스터 4
39	목포	연보리	정장연(전)	에스터 4
40	목포	영암성산	남성환(목)	에스터 4

번호	노회	교회명	교역자	후원자
41	목포	잠덕	한승안(전)	에스터 5
42	서울동남	부활(장예인)	안성준(전)	하나 1
43	순서	강산제일	강동기(전)	하나 1
44	순서	백수	최수현(전)	하나 1
45	순서	우두	김명희(전)	하나 2
46	순천	대곡	임평근(전)	하나 2
47	순천	순천대영	정부오(목)	하나 2
48	순천	순천명성	최순종(목)	논현11, 12
49	순천	월동남부	송기영(전)	잠실 3
50	여수	둔병	강부영(전)	이중윤
51	여수	변촌	이금봉(전)	부교역자
52	영주	덕계	황성배(전)	오정수
53	영주	석암	박영수(전)	이영희
54	영주	전구	황영욱(전)	오윤걸
55	전북동	구락	이식노(목)	오선혜
56	전북동	굴암	최효임(전)	오명걸
57	전북동	동화	전갑희(전)	홍정호
58	전북동	부남	심정보(목)	우선자
59	전북동	성운	오병인(전)	윤봉준
60	전북동	수동	신관철(전)	김명화
61	전북동	시온성	염일선(전)	박철훈
62	전북동	신기	신경의(전)	이경희
63	전북동	오산	김점수(전)	임광식
64	전북동	용포	오효산(목)	이영세
65	전북동	진도	채경석(전)	이남호
66	전북동	청량리	정장현(전)	김대호
67	전북동	충성	박학순(전)	김인수
68	전북	백도	최유창(전)	최재영
69	전서	석포	이수환(목)	고후덕
70	전서	수양	강재봉(목)	이옥녀
71	충남	마금해방	송태의(목)	장애희
72	충남	삼진	계용권(목)	김경아
73	충남	서천성운	강성동(목)	신순우
74	충남	신암	박순배(전)	이관규
75	충북	금관	문영길(전)	강중심
76	충북	마동	최태환(전)	임환, 신철, 미쁨
77	충북	외천	김종성(전)	박가원
78	충북	종곡	곽노형(전)	이태립
79	충청	베다니	이인수(목)	중등부
80	충청	사곡	오유성(전)	청년부

▶「100교회운동」을 전개하면서

농어촌 교회의 실태와 「100교회 운동」의 의의

박 중 상 (전도사, 100교회운동본부 간사)

우리나라의 농어촌 교회는 농어촌 선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농가 경제의 악화, 인구 감소 및 노령화 현상 등으로 그 자립의 기반을 잃은지 오래되었다. 농어촌 교회의 현장은 2~3개의 자연 부락을 하나로 묶은 행정단위 '리'인데, 실제 거주 인구는 300명 이내이다. 이는 도시의 1개 '동'의 인구인 550~600명의 절반 수준이다. 참고로 언급한다면 도시의 1개 '동'은 20~30개의 '통'으로 구성되어 도시교회의 선교지역이 2~3개 동인 것을 감안할 때,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매우 크다. 더욱이 실제적인 활동인구인 20~30대 연령층이 농어촌을 떠나는 것도 농어촌 교회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총회 농어촌 전도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 현재 농어촌 목회자의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는 월 67만원이며,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경우 한 자녀 당 월 10만원의 교육비가 책정되어야 한다. 도시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만 농어촌 교회의 경우 대부분 기본적인 것 이상의 어떠한 혜택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의 경제적 자립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미약한 힘이나마 모아서 농어촌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은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농어촌을 고향으로 한 우리들이 아들, 딸 잘 되라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입으며 살다 간 부모님 세대의 은혜에 보답하는 운동이고, 그동안 부흥하고 발전했던 도시 교회가 땅의 소산을 먹고 지원해 준 농어촌 주민들의 회생 위에서 발전해 온 것을 사랑의 빛으로 갚아가려는 보은운동이다.

더 나아가 이는 우리 민족 전체가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영적 운동이다. 농어촌이 병들고 농어촌 교회가 사라져 가는 차제에, 도시만 살고 도시 교회만 부흥해 갈 수는 없다. 농어촌 교회가 살아야 농어촌이 살고, 농어촌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또 이 나라가 산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의 실천이 민족복음화의 초석이 됨을 기억하고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농어촌 교회에 새 힘을 불어 넣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부서 여모 견모

- 스테반회(간사:김일용 집사)는 21일(토)에 부부 동반 하례회 겸 봉사를 위한 단합대회를 가졌다.
- 가브리엘찬양대(대장: 노문환 장로)도 21일(토) 대원을 위한 친교회를 갖고 영적인 화합을 다졌다.
- 초등부 찬양대(지휘:조대영 선생)는 21일(토), 영성 훈련과 아울러 악전 등 실제적인 음악공부 수준높은 찬양을 드리기 위한 제7회 찬양대 수련회를 가졌다.

■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6시
 극동방송(HLX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6시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30분~9시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농어촌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2. 정직·절제·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3.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